



# 스파이렉스 소식

## Spirax News Letter

〈창간호〉

July, 1981

### ■ 창간 초대 ■

#### 절약형 시스템설계

#### 과연 절약할 수 있는 것인가?



코리아 엔지니어링 (주)

박 상 영 이사/기술본부장



방립방적(주)

김 영 두 환경공해부장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특히 기술분야에 몸담고 있는 기술인으로서 자원고갈 및 자원 민족주의의 대두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심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절감한다.

특히 현대의 인류문명을 현격히 발전시킨 산업발달이 막대한 석유 에너지의 소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감안할 때 근대의 유가인상등 에너지문제는 단순한 문제를 떠나서 위기의 경지에 이르고 있지않나 생각된다.

엔지니어링의 역할은 산재해 있는 모든 필요한 기술을 종합하여 최적의 생산공장 또는 인간의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의 과정은 자체의 Know-how를 통한 설계위에 명시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기등의 재료를 끼워 맞추는 작업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수한 설계의 바탕 위에 우수한 성능의 기기및 재료를 종합시킬 수 있어야만이 최적의 설계로서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기술의 한계는 어떤 의미에서 기기 기술의 한계에 귀착됨을 의미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기기의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측면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영국계의 스파이렉스 사코가 근래에 한국에 상륙하여 공장을 세우고 국제수준의 제품과 기술을 국내에 공급하여오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관련제품을 구할 수 없었던 이유로 직접 수입에 의존하였던 불편한 점을 감안할 때 환영할 일로 받아들여지며 기대되는바 크다 하겠다.

또한 이들은 제품공급에 올바른 응용기술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최적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기술자료 제공에 인색하지 않음이 무척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들이 공급하는 제품과 기술이 국내 산업계에 널리 소개됨으로써 생산성과 에너지 절약의 당면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을 기대해본다.

기름값이 비싸다고 아우성들이다. 거의 매일 매 신문마다 올랐다, 오른다, 오를 것이다 등 원유가에 대한 촉각반응이 빠지 지않는다. 이를 보는 기업은 등을 굽는 사람처럼 반사적이다.

인건비보다 에너지비용이 상회한지도 오래고, 경영회의 때마다 생산보다 에너지의 소리가 높고 잦은 것도 당연하다. 우리공장이 수출실적 순위를 앞다투고 있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에너지 소비실적 순위가 높아져 가고 있었고, 나의 한쪽 어깨에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계급의 수가 늘어난 것이 근간의 필연적인 사실이다.

에너지 절약이 구호나 하고자 하는 정신만으로 추진하던 단계는 지나갔으며 투자없는 절약이 있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우리 공장이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게 된 동기가 「스파이렉스 사코」와의 만남이었다. 결과적으로 스파이렉스의 제품을 산 것이라기 보다는 기술을 산 셈이다.

그것도 교과서나 잡지에 흔히 열거되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무적이며, 응용성이 높고 절약측면의 기대가 큰 기술이다.

내가 스파이렉스와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다.

흔히 비싸다고 하나 비싸지 않다는 점이다. 싸다 비싸다가 투자에 대한 결과를 저울질하지 않고는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많은 효과절약을 눈으로 확인해 온 나는 나의 판단이 옳았으며, 다행한 것은 「스파이렉스」와 같은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고 있는 메이커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공장은 에너지 다소비 업체다. 에너지 다소비 업체라고 하여 에너지를 다 소비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과연 절약할 수 있는 것인가?」  
자명한 답변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있는 중이다.